

보도자료		 The Media Network for Justice www.medianetwork.kr	
보도요청: 2020.4.13.(월) 10:00 부터			
담당	미디어연대		
연락처	(02) 741-7662		FAX (02) 741-7663
E-mail	mirifica@naver.com		

미디어연대 「팩트체크+ 보고서」 2020년 15주차 발표 (4.13일)

- “KBS, MBC 등 공영방송과 JTBC, 여당 막말은 은폐, 야당은 증폭”**
 - 여당의 ‘황교안 애마’ 모독발언은 축소, 야당 ‘세대, 세월호’ 발언은 확대 -
“대통령의 선거중립 위반소지 돈풀기 보도 앞장서는 KBS”
“신뢰도 떨어지는 여당 우위 여론조사 일제 보도로 여당 선거방송화”
 - 방송심의규정상 정치중립,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사실보도 모두 위반 -
 - TV조선은 기계적 형평 보도 유지 -
“MBC 검언유착 보도는 공작 소지 보이는 제보자 발언 일부만 따 것”
“연합뉴스의 위장된 균형보도, 사실상 여당 선거운동원”

4·15 총선 보도에서 KBS, MBC 등 공영방송들과 JTBC, 공영언론인 연합뉴스는 야당의 막말을 크게 증폭시키고 여당의 막말은 보도하지 않거나 끼워넣기로 축소하는가 하면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는 여당 우위 여론조사를 기정사실처럼 대대적으로 보도해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심대한 정치편향적 보도를 지속했다.

KBS는 대통령의 총선을 앞둔 돈 풀기 등 선거중립 위반소지가 큰 동정 보도와 기획 보도를 빈번히 하는 어용방송의 행태를 보였고, MBC는 검언유착이라는 고발보도에서 공작적 소지가 보이는 제보자의 발언을 부분적으로만 따서 자의적 시각으로 범법행위 차원의 유착으로 몰고갔다.

미디어연대(공동대표 이석우 조맹기 황우섭)는 13일 지상파, 종편 등 주요 방송과 공영언론 연합뉴스를 대상으로 3인의 대표와 박한명 위원이 대표위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4월 5일(일)부터 4월 11일(토)까지 7일간 보도 내용을 분석한 「팩트체크+ 15주차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JTBC <뉴스룸>은 야당 후보의 '세대비하' '세월호 비판' 발언을 막말이라며 한주 내내 보도를 쏟아낸 반면, 집권여당 사무총장의 '김종인 돈키호테-황교안 애마' 발언 등 막말을 넘어선 인격 모독적인 발언과 여당 대표의 '지역 비하' '토착 왜구' 발언 등은 아예 다루지 않거나 야당 비판 보도 끝에 짧게 붙여 눈에 띄지 않게 하는 편파보도를 했다. 여당 사무총장은 '대학생 비하' 발언을 했다가 나중에 급히 해명했는데 이 역시 사실상 다루지 않았다.

이런 보도 행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조(정치적 중립), 제5조(공정성), 제6조(형평성), 제8조(객관성), 제12조(사실보도-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 금지)에 모두 위배되는 행위다.

TV조선은 <여야 또 막말 논란...윤호중 "황교안은 애마"·통합당 '특정세대 비하' 논란 김대호 후보 제명>이란 리포트로 균형을 맞춰 보도했다.

KBS, MBC는 한주 내내 총선 접전지 등의 여론조사라며 대부분 여당 후보가 1위인 여야 후보 지지율 수치를 시작화면에 크게 띄워놓고 보도함으로써 사실상 여당 선거 운동 방송을 했다.

한 지역구당 500명에 불과한 표본에다 지지 정당별 응답자 비율이 범여권 50~55%, 범야권 응답률 32% 정도로 보수층의 조사참여율이 상당히 낮아 보이는 조사결과를 버젓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됐다. 이는 push poll(유권자의 투표 행위를 바꾸기 위해 사용), push pull(푸시를 증폭시킨다) 효과를 시도한 불공정 보도 행위이다.

MBC는 4월 10일 <'총선'은 여론조사의 무덤?...조사 방식 따라 달라> 보도를 통해 "그러니까 여론조사도 의심해서 보라는 거죠?"라고 해놓고 이런 무책임한 편향적 보도를 했다.

MBC는 검언유착이라는 단독보도를 통해 채널A 기자와 검찰 간부간 유착을 단정적으로 보도했으나, 실제 공개된 녹취록에서는 '검찰에 대한 언론 제보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상식적인 얘기와 '검찰과 거래는 없다'란 단언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제보자라는 인물은 애초 채널A 기자에게 줄곧 검찰 간부의 실명을 캐다가 안되니까 그간의 과정을 모두 MBC 측에 넘겼다는 점에서 애초 공작 차원의 접근 아니었나 하는 소지마저 있어 보인다.

연합뉴스도 <총선 D-3...여 "과반 만들어 달라" vs 통합 "폭주 견제할 힘 달라">(종합2

보) (4.12 21:59)> “최근 잇단 막말 논란으로 비판을 받은 통합당”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통합당의 막말 행태를 기정사실화한 반면 민주당의 막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는 등 공영언론이 아니라 여당의 선거운동원 같은 보도로 일관했다.

이들 공영방송과 공영언론, JTBC는 전반적으로 청와대와 여당에 유리한 기사는 꼭 집어 키우고, 불리한 것은 축소하거나 누락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총선 국면 막판에 갈수록 교묘한 여당 편들기가 횡행하고 있다. 사실을 충실하게 전달하는 리포터(reporter) 역할보다는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브로커(broker)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이런 행위가 지속되면 그동안의 총선 보도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

(아래 붙임 : 팩트체크+ 15주차 보고서)

「팩트체크+ 15주차 보고서」

차 례

I. 구조화된 KBS의 교묘한 여당 편들기

불공정 보도

- 잘못된 여론조사에 대한 설명없이 확대 재생산

II. 대통령의 선거중립 위배 소지와

어용방송 자처 KBS

- 미래통합당을 범죄자 처럼 낙인 찍는 불공정 KBS

III. 공작 소지 검언유착 걸기 보도 나선

MBC <뉴스데스크>

- 야당의 논란 발언은 증폭, 여당의 문제 발언엔 침묵
- 공작 소지 제보자 발언 일부로만 검언유착 단정 보도

IV. 임박한 4·15 총선, '야당 죽이기'

막말 프레임 올린 JTBC

V. JTBC의 민주당 편들기 보도

VI. 연합통신의 편파적인 총선 보도

- 연합의 위장된 균형 보도
- 연합은 여당의 선거운동원인가?

I. 구조화된 KBS의 교묘한 여당 편들기 불공정 보도

- 총선 국면 막판에 갈수록 뉴스와 프로그램을 통해 공영방송의 교묘한 여당 편들기가 횡행하고 있다.
- 불공정한 총선보도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범죄행위가 될 있다.
- 공영방송이 공정성에 관해 기계적 균형이라도 지켜주는 것이 오히려 강력한 방책이 될 수 있다.

1. 잘못된 여론조사에 대한 설명없이 확대 재생산

○ 이번 총선 기간에 많은 여론조사들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들이 보도됐다. 그 중 4월 9일 KBS <뉴스9>의 여론조사 보도는 모두 8개 선거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다뤘다. 그 중 종로 선거구의 조사결과는 이낙연 59.4%, 황교안 28.8%로, 30%포인트의 격차가 났다는 게 보도의 핵심이었다.



▶ [여론조사]① ‘종로 빅매치’ 이낙연 59%·황교안 28%…강릉 ‘4파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21656>

- 종로 선거구 여론조사표에 나온 조사개요와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응답률부터 10.1%로 4,930명과 통화해서 그중 4,430명은 대답을 회피하고 나머지 500명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으며(응답 완료) 총 조사 대상 500명을 가지고 권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표본의 대표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 구체적인 조사 수치를 보면 500 표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210명이고, 미래통합당 지지자는 119명이 포함돼 있다. 상식적으로 봐도 조사의 기초 사항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특히 조사 결과가 결과적으로 틀릴 경우에 대비해서 전체 조사 대상 수치를 포함한 응답률 부분과 특정 정당 지지자의 과대 표집 부분 등에 대한 설명 등이 보도 내용에 포함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2020.04.10. KBS공영

노조 총선방송 모니터링 제10호 참조).

○ 더 큰 문제점은 타 언론사들이 이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인용해서 또 보도할 수 있어 여론 왜곡이 확대 재생산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2.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 기계적 균형이라도 지켜주어야

○ 4월 9일 KBS <뉴스9>은 총선 공약 관련 리포트는 주요 정당의 공약 이행률을 분석해 봤다. 공약의 이행은 국회 의석과 관련돼 있기에 제시한 공약으로 많은 의석을 얻은 정당, 특히 집권 여당에게 더 많은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또한 교섭단체도 아닌 <정의당>을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등 여야 2대 정당과 동등한 비중으로 다룬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인가? 국회 의석이 더 많은 <민생당>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정 정당을 편드는 불공정 보도의 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2020.04.10. KBS공영노조 총선방송 모니터링 제10호 참조). 이 내용은 4월 10일 KBS 1TV <시사기획-창> 프로그램에서 상세하게 방송되었다.

▶ [탐사K] 민주·통합·정의, 공약 '완전 이행' 10%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21703>

▶ KBS 1TV [시사기획 창] 제 21대 총선 기획 - 공약 이번엔 믿어볼까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22558>

○ 4월 11일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은 4.15 총선 기획으로 여야 4당의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21대 총선의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과 각 당의 비전, 총선 전략을 집중 토론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을 대표한 인물이 출연했다. 토론의 기본은 여야의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데, 소위 여당은 2+1로 3당이 나오고 야당은 미래통합당 1당이 참여한 셈이다.



▶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 4·15 총선기획 누구를 뽑을 것인가?

http://program.kbs.co.kr/1tv/culture/nightdebate/pc/board.html?smenu=9725de&bbs_loc=T2018-0281-04-277182,read,,84,915682

○ 공영방송의 특정 정당 편들기와 구조화된 불공정 보도는 방송사 노조의 정치지향 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본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에서 대표노조가 속한 언론노조가 이번 총선 기간에 더불어민주당·민중당과 정책협약을 맺었다. 이 노조에 속한 노조원들이 주도권을 가진 방송사에서 편파방송은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우리가 시급해 해결해야 할 언론과제가 되었다. 그것은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그것이 공영방송이 지속가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기 때문이다. 다만 총선이 며칠 남지 않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이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계적 균형이라도 지켜주는 것이 오히려 강력한 대책이 될 수 있다.

3. 구조화된 야당에 대한 불공정 보도

○ 4월 6일 코로나19를 다룬 KBS <뉴스9>의 국제뉴스 가운데 싱가포르 관련 아이টে은 문제가 있다. ‘한국을 배우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라는 기자 멘트와 ‘한국이 가장 투명하고 빠른 대응을 해서 오늘 50명 이하로 확진자가 나온 것을 보고 싱가포르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라는 싱가포르 한인회장의 인터뷰 내용이 나온다. 지금은 ‘한국을 배우려는 움직임도 있다’라는 구체성 없는 표현을 써서 여론을 오도해 서는 안된다.

▶ 지난달 개학 싱가포르 각급 학교, 다시 섰다운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18737>

- 싱가포르 최대 일간지 <스트레이트 타임즈>나 <CNA> 방송 등에 나온 기사 내용에 따르면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는 서울발 로이터 기사가 주요 골자일 뿐이다. 지금 선거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대응을 자신들의 업적으로 삼는 홍보 전략을 들고 나선 상황에서, 이런 식의 보도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2020.04.07. KBS공영노조 총선 방송 모니터링 제6 참조).

○ 4월 10일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된 만큼 이제 선거 관련 리포트는 멘트 한 대목, 단어 하나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런데 4월 10일 사전 투표 첫날 투표율이 높은 이유를 분석한 KBS <뉴스9> 리포트는 교묘한 편파 보도였다.

▶ 총선 D-5...사전투표 첫날 12.14% ‘역대 최고 기록’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22479>

▶ 코로나19에, 각 당 독려에...판세 영향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22480>

- 사전 투표자의 실제 구성 분포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비록 여당과 야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는 형식을 빌렸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국난 극복을

응원하는 유권자가 많이 나왔다고 했고, 통합당 관계자는 지지층이 지난 번보다 많이 나왔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는 멘트도 교묘한 편파이다. 여당의 메시지는 충실히 반영한 반면, 균형을 맞춰줘야 할 야당의 ‘정권 심판’이라는 메시지 대구(對句)는 반영을 안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을 다루는 아이템도 문제다. 대통령은 선거에서 명백하게 중립을 지켜야 한다, 법률이 규정하고 있고 관건 선거는 용납될 수 없다. 선거 운동과 함께 시작된 대통령의 대구, 제주, 강원 방문이 선거 국면에 영향을 줬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4월 10일 KBS <뉴스9>은 빌 게이츠와의 통화 등 코로나 관련 대통령 동정을 별도 리포트로 다뤘다.

▶ 문 대통령 “생활방역 전환할 수도”…빌게이츠 “한국이 세계 모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22492>

- 무슨 특별한 대책이 담긴 것도 아니었고 잘 하고 있다는 식의 분위기만 풍기는 내용이었다. 4월 9일 코로나19 극복이라는 콘셉트로 선거를 치르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에 부응하는 잘못된 보도 행태이다. 과거에는 그토록 대통령 보도를 비판하던 집단이 이번 선거 운동 기간에 두드러진 대통령의 관건 개입성 행보에 대해 비판하는 멘트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2020.04.11. KBS공영노조 총선방송 모니터링 제11호 참조).

○ 전반적인 총선 보도 추이를 보면 청와대와 여당에 유리한 기사는 꼭 집어 키우고, 불리한 것은 축소하거나 누락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총선 국면 막판에 갈수록 KBS의 교묘한 여당 편들기가 횡행하고 있다. 사실을 충실하게 전달하는 리포터(repoter) 역할보다는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브로커(broker)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이런 행위가 지속되면 그동안의 총선 보도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

Ⅱ. 대통령의 선거중립 위배 소지와 어용방송 자처 KBS

1.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보도는 공직자 선거 개입 소지

- 헤드라인에 이어 대통령 관련 기사 모두 선거중립 위반이다. KBS는 공정성 위반으로 청와대 나팔수, 부역자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코로나 지원 ‘현금 베풀기’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문 대통령이였다. 선거중립 위반, 선거개입에 다름 아니다. ‘착한 소비 운동’은 선거 후에 해도 늦지 않다. 그걸 투표 일 1주일 앞두고 하는 것은, 헌법질서

유린,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동이다.

“[문재인 대통령 : “중앙부처뿐 아니라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 공기업까지 모두 동참하여 어려운 전국 곳곳의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참여도 늘리기 위해, 음식, 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쓴 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80% 까지 높입니다. 총급여 5천만 원인 근로자가 상반기에 신용카드로 2천만 원을 쓴다면, 225만 원인 공제액이 한도인 300만 원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또, 민간기업도 선결제, 선구매할 소득세, 법인세에서 1%를 공제해줍니다.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납부를 8월 말로 미뤄주고, 손실 본 기업에 세금 돌려주는 건 6개월가량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 총리 : ‘경영사정 악화로 결손기업 증가가 예상되고 그만큼 당장의 현금유동성 문제가 절실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중소기업에 대해 상반기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4.8)

▶ ‘코로나19’ 팬데믹. 곳곳에서 ‘착한 소비’ 운동…정부·공공기관도 나선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20690>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2조 ③방송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선출된 자와 정당법에 의한 정당간부를 출연시킬 때는 공정의 원칙에 따라 균형을 유지하여 한다.] 위배 소지.

2. 선거 6일 앞 두고 또 돈 풀기에 나선 대통령 보도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9일)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산학연 합동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개발한 치료제나 백신은 정부가 충분히 구매, 비축해 개발 비용을 100% 보상받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9)

▶ ‘코로나19’ 팬데믹. 문 대통령 “치료제 개발 끝을 보라…개발비용 100% 보상”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21648>

3. 정부와 코드 맞추는 KBS. 공영방송 포기하고, 어용방송으로 자처

“국민 동원 같은 행동은 선거 끝나고 해도 늦지 않아.”

<‘원스톱 계약’…수출·벤처 38조 지원 다음기사 화상 ‘원스톱 계약’…수출·벤처 38조 지원>

필요한 물건, 앞당겨 사고 세금혜택까지 받는 착한 소비법, 9시 뉴스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죠. 재난주관방송사인 KBS도 지난달부터 ‘우리 함께’ 라는 착한소비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6시 내고향에서는 3월 16일부터 판로 막혀 어려워진 농가들 돕고 있고요.

어제(7일) ‘우리 함께’ 첫 방송이었는데요.

물리적 거리두기는 유지하되 마음의 거리는 좁히는 착한 소비 사례들 소개됩니다.

(4.8)

▶ ‘코로나19’ 팬데믹 ‘착한 소비’ KBS는 연중기획으로 참여 중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20691>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2조 ①방송은 정치와 공직선거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공정정성과 형평성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위배 소지.

4. 미래통합당을 범죄자 처럼 낙인 찍는 KBS의 선거 불공정성

- ‘세대 비하 김대호, 세월호 차명진 후보 막말, 편법 등재 의혹 등’ 동영상은 미래통합당 폄하 일색. (‘금기와 싸우는 사람들’로 기록됨.)

〈“D-7 지지 호소…통합당, 차명진 후보 제명 검토”〉,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민주당과 통합당이 저마다 과반 의석을 자신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세대 비하 발언 책임을 물어 김대호 후보를 제명한 통합당은 세월호 유가족과 관련해 또 막말을 한 차명진 후보 제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상한 비례후보들…투기 논란·편법 등재 의혹도〉

“유권자가 직접 선택할 수 없는 비례대표 후보들의 자질을 KBS가 검증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논란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논문에 아들을 공저자로 올리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20686>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2조 ①방송은 정치와 공직선거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위배 소지.

5. 세월호와 5·18은 성역(聖域)인가.

차명진 후보는 분명 세월호 문제점을 이야기했다. 세월호 텐트 안에서 불미한 행동이 있었다는 것은 불편한 진실이다. 토론회에서 여권이 그걸 물으니 이런 것도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었다. KBS가 4일 연속 이 문제를 폄하하고, 여당도 합세하여 야당 비판용으로 총 공격을 가함.

“차명진 후보는 더 이상 우리 당 후보가 아니다”, 황교안 대표의 심야 입장문 발표에 이어 오늘(11일)은 김종인 위원장과 황 대표가 만나 막말 후폭풍 차단에 나섰습니다.”
[김종인/미래통합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 : “(윤리위원회가) 재판하는 식으로 이게 징계의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식의 판단을 하니까 저런 소란만 계속….”]

[황교안/미래통합당 대표 : "어제 저녁에 제가 입장문을 내서 정리했습니다." (4.11).

▶ 21대 국회의원 선거 '막말' 후폭풍에 함구령까지... '면죄부' 차명진은 유세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22888>

-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①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다뤄야 한다.] 위배 소지.

6. 공영방송 KBS는 소수 정당을 자세히 보도할 의무.

- 공영방송은 원래, 다른 상업TV와는 달리 소수 정당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보도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4·15 선거는 여당 중심이고, 그리고 그 보다 상당히 불공정하게 제1야당 중심으로 보도한다.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두고 35개의 정당이 경쟁중인 상황. 다양한 생각을 반영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데, 상당수는 급조된 일명 뿔다방 정당입니다. 비례의석을 받으려면 정당득표율 3% 이상이 돼야 하는데 그동안 여론 조사 결과,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4.10). 비판적 보도이다. 그것도 기사를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 21대 국회의원 선거. 작은 정당 큰 뜻...우리도 뵙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22496>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2조 ①방송은 정치와 공직선거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위배 소지.

7. 유권자의 투표 행위에 영향을 주는 불공정한 'PUSH POLL' 보도

- 여론 조사만 5일(2건), 9일(2건). 여당이 월등히 높은 경향. 선거 1주일 전의 이런 여론조사는 push poll(유권자의 투표 행위를 바꾸기 위해 사용), push pull(푸시를 증폭시킨다)에 해당.

- KBS 공영방송이 해서는 안되는 행위다. 여론조사 응답률은 대부분 4~5% 내외이다. 그걸 일반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여론조사의 마술을 악용하고 있다.

"KBS가 전국 8개 선거구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이 선거 전 마지막 여론조사인데요, 최대 빅매치인 서울 종로에선 이낙연 후보가 황교안 후보를 약 30%포인트 격차로 앞섰습니다." (4.9).

▶ 21대 국회의원 선거

[여론조사]① ‘종로 빅매치’ 이낙연 59%·황교안 28%…강릉 ‘4파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21656>.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①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위배 소지.

Ⅲ. 공작 소지 검언유착 걸기 보도 나선 MBC <뉴스데스크>

“야당의 논란 발언은 보도 쏟아내고, 여당의 인격모독 발언엔 침묵”

1. 주요 팩트체크 사안

● 야당에 대해서는 ‘세대비하’ ‘세월호 비판’ 발언을 막말이라며 부정적 기사 8건을 쏟아내는 동안 여당의 ‘김종인 돈키호테-황교안 애마’ ‘부산 비하’발언 등은 막말을 넘어 인격 모독성인데도 아예 다루지 않거나 야당 비판 기사 말미에 끼워넣기로 표시 안나게 처리했다. 총선 보도를 전반적으로 여당은 긍정적으로, 야당 부정적으로 묘사했다.

● MBC가 공영방송의 책무를 망각하고 특정 진영 편에 선 일방적 보도를 계속 쏟아내고 있다, 채널A 기자와 검찰 간부간의 유착 의혹 보도에서 일방적인 내용만 보도하며 유착과 협박으로 몰고 갔다, 더구나 MBC에 제보했다는 지모씨라는 인물은 애초 채널A 기자에 대해 정보를 줄 것 처럼 접촉해 놓고 줄곧 봐 줄 수 있는 검찰 고위직이 누구인지 캐묻다가 안되니까 MBC에 접촉 과정을 다 넘겼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공작 차원의 접근 소지가 컸고 수감중인 신라젠 사건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도 그제서야 MBC 기자에게 최경환 전 부총리의 연루 주장을 서면을 전달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이런 정황은 여러 언론이 후속보도한 채널A 기자와 지모씨 간의 녹취록 전문에 나타나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는 채널A 기자가 지모씨에게 검찰 간부 실명 확답을 거듭 피하면서 검찰과 거래는 없다고 말한 사실도 보도하지 않았다. 또 채널A 기자가 지모씨에게 한 말은 “(검찰 고위 간부 말은) 언론에 보도하고 언론이 제보 내용을 검찰에 말해주는 형식 자체가 왜 문제가 되느냐, 전혀 문제 될 게 없다 그 형식은. 얘기를 들어보고 나한테 알려달라. 얘기가 될 거 같으면 수사팀에 그런 입장을 전달해 줄 수 있다. 수사를 막는 게 아니라 양쪽에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 이건 말 그대로 문제가 없다. 또 수사에 협조하면 형량에 배려하는 ‘폴리 바게닝’도 합법적이다, MBC는 공작 소지가 보이는 제보를 그대로 보도하기 앞서 여권에 일방

편향된 보도 행태부터 시정해야 한다. 이것은 채널A 기자에게서 일부 지적할 수 있는 취재윤리 차원을 넘어선 공영방송으로서의 법적 의무다.

● 4월 6일부터 총선 접전지 여론조사라며 5일 연속 여야 후보의 지지율 수치를 시작 화면에 크게 띄워놓고(대체로 여당 후보 우위) 기정사실화하는 위험한 편파적 보도를 했다. 한 지역구당 500명이라는 작은 표본에다가 지지 정당별 응답자의 비율이 범여권이 50~55%, 범야권이 응답률 32% 정도로 보수층이나 중도보수층의 조사참여율이 상당히 낮을 가능성이 높아 실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여론조사 결과이기 때문이다. MBC 스스로 4월 10일 마지막날 <'총선'은 여론조사의 무덤?...조사 방식 따라 달라> 보도를 통해 “그러니까 여론조사도 의심해서 보라는 거죠?”라고 해놓고 이런 무책임한 편향적 보도를 했다.

● 4월 7일 <'폐쇄 명령' 나몰라라...이만희 버젓이 나타나 '활보'> 기사등 신천지 교회 관련 기사를 3건이나 다루어 다른 유흥업소 영업 미단속 문제 등과의 균형성에도 어긋나고 특정집단에 코로나19 책임 떠넘기기 보도를 지속했다.

2. 주간 보도내용 전수 분석과 팩트체크

*보도일 / 보도 기사 총 건수-스포츠 기사 제외 / 보도 순번 / 기사 제목 / 팩트체크(보도 전문) 순.

[4.5] <총 13건>

(톱1) 거짓말·무단이탈 등 방역 방해하면 징역형 엄벌

(톱2) 자가 격리 중이라더니...복권 구입에 나들이에

(톱3) 감기약 먹고 공항 통과...약 복용 왜 몰랐나?

(톱4) 또 예배 강행...마스크 안 쓴 아이들도 발견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04147_32524.html

(👁️ 경기도에서 행명명령을 내린 교회가 20곳인데 굳이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를 사례로 들. 유흥업소의 계속 영업 문제도 제대로 보도한 적 없다.)

(5)~(9) 코로나19, n번방, 사건사고 기사

(10) [선택2020] "단합이나 혼란이나"...'일꾼' 여당론 내세워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04199_32524.html

(👁️ 여야 선거운동 나눠 보도하는데 여당 편에선 여당 긍정 묘사도 모자라 야당 부정 묘사를 끼워 넣고 여당 일방 주장인 양비론적 사안을 여당에게 유리하게 굳이 인용.)

[보도 전문]

앵커

이제 총선이 딱 열흘 남았습니다.

오늘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첫 일요일이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20대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야당을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동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동작을 지원유세에 나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20대 국회를 막말과 폭력으로 얼룩지게 한 장본인이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라며, 이제는 싸움꾼 대신 일하는 사람을 국회로 보내자고 호소했습니다.

[임종석/전 청와대 비서실장]

"(20대 국회는)막말과 폭력과 싸움으로 얼룩졌습니다. 이 국회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 중의 장본인 누구니까, 여러분?<나경원!>"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 맞서 국정운영을 방해해 온 야당을 이번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에게 미워하지 말자고 했다. '미워한다'는 답을 받았던 이낙연 국난극복대 책위원장은 "국난 극복에는 여야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위원장]

"서로 미워하지 말고 손잡고 지혜를 짜서 이 국난을 빨리 극복하고 국민을 고통에서 벗겨 드려야 될 거 아니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소상공인과 장애인, 안보 분야의 공동 공약을 발표하며 '더불어 마케팅'을 본격화했습니다.

하지만 두 당의 기호, 1과5가 함께 적힌 선거유세버스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따라 디자인을 바꾼 차량으로 유세에 나섰습니다.

민생당은 대구와 울산, 경주를 찾아 거대 양당의 싸움으로 나라가 엉망이 됐다며 제3당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은 '집단 성착취 영상거래 사건'과 관련해 '호기심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황교안 대표의 선거 사무실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이는 등 사건 해결 촉구를 위한 집중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영상취재: 양동암, 한재훈 / 영상편집: 최승호)

(11) [선택2020] "조국이나 대한민국이나"...조국 소환해 이슈화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04200_32524.html

(👁️ 야당 일방적 부정 묘사)

[보도 전문]

앵커

그동안 경제와 방역 등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부각시키던 미래통합당은 선거가 다가오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고리로 '정권 심판론'을 부각시켜서, 조 전 장관에게 비판적이었던 중도층의 표심을 얻겠다는 선거 전략으로 보입니다.

신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총청권 공약에 함께 나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김종인 통합당 상임선대위원장은 경제와 방역 대응을 놓고 정부를 비판하다 갑자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끄집어냈습니다.

정부여당이 '조국 살리기'를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 공격에 나섰다며, 이런 여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종인/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

"조국을 살릴 거냐,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릴 거냐... 여러분들 보시기도 무엇이 우선해야 하느냐는 삼척동자도 잘 알 겁니다."

종로 유세에 나선 황교안 대표는 "조국 수호세력이 민주당 비례정당을 만들어 국회 입성을 노리고 있다"며 열린민주당까지 겨냥해 공격에 나섰습니다.

[황교안/미래통합당 대표]

"조국 따라하기, 조국의 종자들 막아내고 총선에 나온 사람들 다 떨어뜨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승민 의원도 수도권 지원유세에서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이 정권의 위선을 똑똑히 봤다"며 공세를 더하는 등, 통합당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조국 공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문혀버린 정권심판론의 불씨를 살리면서, 조 전 장관에게 비판적인 중도층의 표심을 얻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통합당은 코로나19 피해 대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 명령권을 발동해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닷새째 국토 종주 달리기를 이어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현 정권이 집권 내내 이미지 정치에만 몰두해 '정치 쇼'에 싫증을 느낀 국민들이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 : 이형빈 / 영상편집 : 문철학)

(12) [선택2020] [로드맨] "또 왔어요"...수십 년째 '지박령' 공약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04248_32524.html

(☞ 헛 공약 사례를 과거 야당의 과거 '뉴타운 정책'으로 지목. 성공실패 여부를 일방적으로 논할 수 없는 사안인데 단정적으로 매도.)

"지난 18대 총선, 서울에서 너도나도 '뉴타운 공약'을 내걸었는데, 그들의 재선 성적표를 볼까요? 60% 넘게 떨어졌습니다.

허황된 개발 공약은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13) 코로나19 기사

[4.6] <총 23건>

(톱1) [선택2020] 與 "부산 개발" 野 "조국 심판"...부부 합동 유세전

(톱2) [선택2020] "모든 국민에 재난지원금"...與野 선심성 지르기?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06948_32524.html

(☞ 야당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하자 갑자기 양비론으로 전환.)

(톱3) [선택2020] "3040 논리 없고 무지"...통합당 후보 '세대 비하' 파문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06948_32524.html

(☞ 야당 세대 비하는 파문이라며 집중 보도해 놓고, 여당 대표의 지역(부산)비하 발언을 끄트머리에 슬쩍 끼어 넣은 정치 편향적 보도의 지속)

[보도 전문]

앵커

미래 통합당의 선거 대책 회의에서 서울 관악 갑에 출마한 김대호 후보가 "3, 40대가 통합당에 차가운 건 논리가 아니라 정서"이고 거대한 무지"라고 발언해 세대 비하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 지도부까지 김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지경 기잡니다.

리포트

미래통합당 서울지역 후보자들이 참석한 선거대책회의.

관악구갑 김대호 후보는 지역을 다녀보니 30~40대는 경멸과 혐오를 보낸다며 이들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모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대호/미래통합당 서울 관악갑 후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만큼이라도 이렇게 성장을 했는지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그 구조, 원인, 동력을 모르다 보니까 기존의 발전 동력을 무참히 파괴하는 쪽으로..."

그러더니 이들의 문제의식엔 논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대호/미래통합당 서울 관악갑 후보]

"30대 중반에서 40대는 논리가 아닙니다. 그냥 막연한 정서입니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입니다."

미래통합당에 차가운 3040세대는 무지와 착각에 빠져있다는 것인데, 발언이 나오자마자 세대 비하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호진/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명백한 30~40대 비하 발언이자 세대 갈등 조장 발언으로 논리라고는 단 1도 찾을 수 없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김대호 후보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고, 황교안 대표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선대위 차원에서 엄중 경고했습니다.

김대호 후보는 페이스북 북을 통해 "사려 깊지 못한 발언으로 상처를 드려 사죄드린다"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앞서 부산을 방문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부산이 초라한 건 경부선 철도탓이라 한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산에 올 때마다 많이 느끼는건데 왜 이렇게 부산은 교통이 체증이 많을까, 그리고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통합당과 정의당은 "부산 지역이 초라하다면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며 지역 폄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김지경입니다.

(영상취재: 양동암, 박지민 영상편집: 우성호)

(4)~(11) 코로나19, 배달의민족등 보도

(12) [바로간다] "썩은 정신 개조한다"…신천지 '죽음'의 군사훈련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07097_32524.html

(👉 특정종교의 교리교육을 문제 삼는 건 공영방송의 주요뉴스 시간에 다룰 수 없는 부적절한 소재.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일방적 비난 보도. 코로나19 확산책임을 묻는 의도의 보도인데 그 자체도 논란이 있고 그렇다 해도 정부의 중국발 원천 감염원 차단 방지 책임이 최우선. 그러나 문 정권 책임은 일체 지적 않는 무책임성을 노출.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와 관련 방송법 및 관련법류 위배소지가 대단히 크고 종교의 자유 침해 소지도 있음.)

(13) 여야 5명 비리 보도 안 했다?…"본질 물타기 그만"

(14) [선택2020] 이낙연-황교안 첫 TV 토론…팽팽한 '대선 전초전'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07099_32524.html

(👉 황교안 후보가 사안의 본질을 지적하면 이낙연 후보는 레토릭으로 답변하는 모습의 토론회인데 단순 기계적으로 보도)

(15) [선택2020] [MBC여론조사] '6번째 맞대결'…우상호 48.4% vs 이성현 32%

(16) [선택2020] [우리 동네 누가 앞서나] 요동치는 표심 '박빙'에 혼전 거듭…'격전지' 늘어

(👉 (15),(16) 리포트에서 여권 지지자들이 다수 참여해 표본이 편향됐을 소지가 있는(범여 지지 50~55%, 범야 지지 32%) 여론조사 결과를 계속 보도. '부동층이 29%에 달했다'는 멘트가 추가됐지만 원천적으로 여권 지지자가 조사에 적극 응한 구조하에서는 그것 만으로도 보정이 안됨.)

(17)~(22) 코로나19, 사건사고

(23) [정참시] 정책·공약 비교 2탄 '성착취 영상' 파문…성범죄 대책은?

[4.7] (총 25건)

(툽1) '전 국민 재난지원금' 급물살

(툽2) 與野 "지급할 거면 빨리"…유승민 "악성 포퓰리즘"

(툽3) [선택2020] 與 "일할 사람 뽑자"…강남에선 "종부세 재검토"

(👉 노골적인 여권 선거운동 보도)

(툽4) [선택2020] 이번엔 '노인 비하' 김대호 제명…野 강원 총력전

(👉 야당은 부정적인 것만 골라 보도)

(툽5) [선택2020] [MBC여론조사] 3파전 인천 연수읍…정일영·민경욱 오차범위 초접전

(툽6) [선택2020] [우리 동네 누가 앞서나] 마음 굳히는 유권자들…수도권 판세

'안개 속으로'

(7)~(10) 코로나19 기사

(11) [단독] '폐쇄 명령' 나몰라라...이만희 버젓이 나타나 '할보'

(☞ 집회 시설 외 부동산은 감염과 상관이 없는데 굳이 마녀 사냥식 보도.)

(12)~(22) 코로나19, 사건사고 기사

(23) "채널A 협박취재 수사하라"...방통위도 '의견 청취'

(24) 코로나19 기사

(25) [정참시] '정책·공약비교 3탄' 부동산정책, 집값 어떻게 잡나?

(☞ 야당의 정책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고가 아파트가 공급돼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라고 멘트를 붙여 노골적으로 여당을 편드는 정치중립 위배 보도. 종부세 부과에 대해 여당이 말을 뒤집은 데 대해 "통합당은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자는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민주당도 지역에 따라 표를 의식한듯한 비슷한 발언이 나오는 겁니다."라고 몰타기로 여당을 호위.)

[4.8] (총 28건)

(톱1) '전 국민 지급' 한발 뎀 丁총리..."고소득자 환수 전제"

(톱2) [선택2020] 與 부산·광주 바람몰이..."함께 해요! 사전투표"

(톱3) [선택2020] 통합 "'코로나 팔이' 중단하라...과반 의석 확신"

(톱4) [선택2020] 차명진 또 세월호 막말..."공천 때부터 예고된 참사"

(톱5) [선택2020] 김종인 "차명진도 제명"...내일 대국민 사과 회견

(☞ 여권의 막말이란 보도를 집중한 뒤, 여당의 사무총장이란 고위 당직자가가 모독죄에까지 해당할 수 있는 발언을 했는데, 뒤에 붙여 버리고 끝냄)

"잇단 악재로 위기에 몰린 통합당은 황교안 대표를 애마에 비유한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을 고소하기로 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어제)]

"(김종인 위원장은) 황교안 애마를 타고, 박형준 시종을 앞에 데리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가상의 풍차를 향해서..."

이에 민주당은 통합당이 고소하면 무고혐의로 맞고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톱6) [선택2020] [MBC여론조사] 격전지 서울 광진을...고민정·오세훈 "격차 벌어져"

(톱7) [선택2020] [MBC여론조사] 판사 선후배 격돌...이수진·나경원 "초박빙 접전"

(8)~(27) 코로나19, 사건사고 기사

(28) [정참시] '정책공약 비교 4탄' 검찰개혁? 공수처 저지 vs 사수

(☞ 정책 비교가 아니라 여권의 공수처 당위성을 장황하게 리포트하는 편파 보

도)

“검찰 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법, 야당이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법은 결국 국회를 통과 했는데요. 무소불위의 기소권을 독점하고 직접 수사까지도 벌일 수 있는 검찰, 제식구 감싸기 같은 논란도 반복돼왔죠. 막강한 검찰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공수처 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

[4.9] (총 26건)

(톱1) [선택2020] 민주 "총선 승기 잡았다"...사전투표 참여 호소

(톱2) [선택2020] 통합 '청년층' 공약..."대학생 재난장학금 1백만 원"

(톱3) [선택2020] 고개 숙인 김종인 "정말 죄송"...유승민 "공천 잘못"

(톱4) [선택2020] [MBC여론조사] 최종 여론조사...與 국정안정론 vs 野 정권심판론

(☞ 범여 지지자 조사참여 비중 53%, 범야 지지자 조사참여 비중 31%, 무당층 9.4%. 후보 바꿀수 있다 32%인 지극히 신뢰도 떨어지는 여론 조사를 사실인양 보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72%에 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도 58.1%로 MBC 조사에선 최근 1년 반 사이 가장 높았습니다.

대선주자 선호도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 30.8%, 이재명 지사 14.4, 황교안 대표 11.5, 안철수 대표 4.6%로 코로나 사태이후 이재명 지사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톱5) [MBC여론조사] "지원금 전 국민에" 41%..."격리자에 손목밴드" 75%

(6)~(15) 코로나19, 사건사고 기사

(16) 채널A '취재윤리 위반' 인정..."위에선 몰랐다"

(25) [선택2020] [우리 동네 누가 앞서나] 민주 '수도권' 통합 '영남' 약진...오늘의 민심은?

(26) [정참시] '정책공약 비교 5탄' 외교안보..."중국 눈치 본다!" vs "일본 편든다!"

[4.10] (총 18건)

(톱1) [선택2020] 코로나도 못 막은 투표 열기...12.14% '역대 최고'

(톱2) [선택2020] 민주 충청권 공약..."안정의석 2% 부족 채워달라"

(톱3) [선택2020] 몸 낮춘 통합당..."부족하지만 일할 기회 달라"

(톱4) [선택2020] 차명진 제명 못한 통합당...김종인 "한심한 결정"

(톱5) [선택2020] 약재 커질라...내일 '김종인-황교안' 긴급 회동

(6)~(13) 코로나19, 사건사고 기사

(14) "기자 통화...해당 검사장 맞다"...채널A '시인'

(15) [선택2020][우리 동네 누가 앞서나] 속출하는 '변수들' 출렁이는 민심...여

론조사엔?

(16) [선택2020] '총선'은 여론조사의 무덤?...조사 방식 따라 달라

(17)~(18) 코로나19 등

[4.11] (총 15건)

(톱1) [선택2020] 1,174만 명이 사전 투표...26.7% 역대 최고 기록

(톱2) [선택2020] 마스크에 비닐장갑 끼고 '한 표'...투표소마다 '긴 줄'

(톱3) [선택2020] 민주, 강남 등 혐지 공략..."막말 정치 끝내달라"

(톱4) [선택2020] 통합, 수도권 집중..."국민 한숨으로 촛불 꺼져"

(톱5) [선택2020] '막말' 차명진 말로만 제명...김종인 "지도부 입 닫아라"

(6)~(8) 코로나19 기사

(9) [다시간다] 신천지 훈련서 숨졌는데 "덮어라"...부모도 몰랐다

(10)~(15) 코로나19, 사건사고 기사

IV. 임박한 4·15 총선, '야당 죽이기' 막말 프레임 올린 JTBC

1. 김대호·차명진 후보 막말 논란 연일 보도하며 '사골 우리기'

▶ 3040은 무지하고 무논리?...미래통합당 세대 비하 논란 (4.6.월)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43878&pDate=20200406

○ [앵커]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은 말조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6일) 미래통합당에서 나온 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30대 중반부터 40대는 논리가 없다는 식의 주장입니다. /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해당 발언은 통합당 서울 지역 후보들이 모인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김대호/미래통합당 서울 관악갑 후보 : 30대 중반에서 40대는 논리가 아닙니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입니다.] 김대호 후보는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발전 동력이 무참히 파괴된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 이 회의에서 말조심을 당부하는 발언이 있었지만, 몇 분 만에 바로 문제성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 [지상욱/미래통합당 서울 중·성동을 후보 : 정말 함께 같은 표현이라도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주시기를 지도부께서 논의해 주시고...]

○ 관련보도 :

- ▶ "있을 수 없는 발언"...통합당, 3040 비하 논란 김대호 '제명' (4.7.화)
- ▶ 통합당, 연이은 후보 막말 논란...차명진·김대호 '제명' (4.8.수)
- ▶ 총선 앞두고 터져나온 '막말'...통합당, 진화 나섰지만 (4.8.수)
- ▶ '차명진 막말'에 허리 숙인 통합당..."한 번만 기회 달라" (4.9.목)
- ▶ 당 제명 결정에도...김대호·차명진 "끝까지 선거" 폭주 (4.9.목)

○ 나흘 연속 김대호 후보 관련 집중 보도. 심지어 김대호 후보와 관련 없는 차명진 후보 세월호 발언 논란 이슈와도 묶어서 지속적으로 보도. 미래통합당에 불리한 이슈 확산 및 재생산에 JTBC가 역할을 하고 있음. 이번 총선에 JTBC가 심판이 아닌 선수로 뛰고 있다는 방증.

○ JTBC 총선 보도는 전체적으로 여권 인사 막말 발언은 감추고 보수 야당 관련 불리한 이슈만 부각시켜 보도하는 경향이 짙음. 여야 막말 논란의 경우, 같은 종편 채널 TV조선(4월 7일 방송)이 보도한 <[결정 2020] 여야 또 막말 논란...윤호중 "황교안은 애마"·통합당 '특정세대 비하' 논란 김대호 후보 제명> 등에서처럼 보듯 기계적인 균형을 맞춘 보도와 상반되는 편파적인 보도행태를 보임. 보수 야당에 불리한 이슈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음.

○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 공정성 ① 방송은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②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형평성) ①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하여 실질적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평한 관심과 처우를 제공하여야 한다.

▶ 차명진 통합당 후보, TV토론서 또 '세월호 막말' 파문 (4.8.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44276&pDate=20200408

○ [앵커] 총선까지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앞선 총선을 보면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가 이 일주일 동안에 누구를 찍을지 정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내일(9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할 수 없습니다. 판세를 읽기가 힘든 낱낱이 선거 기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미래통합당에선 또 발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차명진 후보가 공개된 자리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관련해 한 말입니다. 입에 담기조차 힘듭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입니다. / [기자] 해당 발언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경기 부천병 후보 간 TV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막말 논란'에 대해 논쟁을 벌이다 얘기가 나온 겁니다. [김상희/더불어민

주당 경기 부천병 후보 :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라고 했는데) 이 발언과 관련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차명진/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 : 혹시 사건이라고 아세요? 사건.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 유가족과 자원봉사자가 세월호 텐트 안에서 문란한 성행위를 가졌다고 주장한 한 매체의 기사를 언급한 겁니다. / 그러면서 세월호 유가족이 참사를 이용하고 있단 기존의 주장도 또 꺼냈습니다. / [차명진/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 : 국민 성금 다 모아서 만든 그곳에서, 있지 못할 일이 벌어진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숙하기는커녕 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대표를 마치 세월호 주범인 것처럼 몰아가는 사람들...] / 잠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사과를 하기도 했지만, 자신의 주장은 막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 [차명진/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 : 세월호 유가족 마음에 상처를 드렸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분들은 이상해요. 저런 얘기한 것을 자꾸 막말이라고 그래요.] / 논란이 커지자 차 후보는 "언론에 나온 기사 내용을 언급할 것일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차명진 막말 논란의 시작은 상대측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세월호 참사 이후 사람과 짐승으로 나뉜다'는 발언을 꺼내며, 세월호 관련 부조리에 대해 비판의견을 내는 국민과 비판자들을 짐승으로 매도하는 막말을 하며 질문을 던진 것이 발단이 된 사건임. JTBC가 자체 편집한 것인지 영상을 제공한 OBS에서 편집된 영상을 제공한 것인지 몰라도 JTBC는 김상희 후보의 이 막말은 보도하지 않고 차명진 후보 발언만 부각시켜 보도함. JTBC는 언론으로서 양쪽 발언의 전체 맥락을 살펴보고 공정하게 보도할 의무가 있음. 그럼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한 쪽 막말은 감추고 한쪽 막말은 부각시켜 일방적으로 불리한 보도를 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음. (JTBC는 4월 10일 보도에 가서야 김상희 후보 막말 전체를 맥락 따라 소개하지 않고 '짐승' 단어를 거론한 발언만 살짝 보도함)

○ 차명진 후보의 경우도 김대호 후보와 마찬가지로 연속4일, 사실상 편집왜곡, 조작된 보도로 공격함. JTBC는 공정성 형평성 등 보도원칙 버리고 민주당 선거운동원처럼 보도함. 특히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김상희 민주당 후보의 '짐승' 막말 도발발언은 편집해 빼버린 왜곡 영상을 되풀이해 보도하면서 연일 선거에 영향을 주는 불공정, 편파보도를 했음. 특히 미래통합당 n번방 논란 공포탄 비판 뉴스 꼭지에서조차 차명진 막말 논란을 또 비벼서 보도함. JTBC가 이처럼 이 이슈를 지속적으로 과다하게 활용하는 것은 '수도권에 영향을 주고 싶다'는 희망으로 보일 정도임.

○ 특히 4월 9일자 보도 <당 제명 결정에도...김대호·차명진 "끝까지 선거" 폭주> 에선 허위보도까지 했음. 통합당은 차명진 후보 제명이 아닌 윤리위원회에 회부했음. 그

럼에도 JTBC는 아무런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인데도 공식 당 관련 기구를 거쳐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통합당 한 최고위 개인의견으로 제명 결정이 반복될 가능성이 없다며 차명진 후보 제명을 기정사실화하는 오보를 함. 그리고 다분히 의도적인 그 오보를 바탕으로 투표용지 인쇄가 돼 유권자들이 혼란을 일으켜 사표가 될 수 있다고 사실상 낙선운동을 하는 보도를 함. JTBC는 허위보도로 특정 후보자 낙선을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셈임. 이걸 법적으로 조치해야할 엄청난 허위보도임.

○ 관련 보도 :

- ▶ 통합당, 연이은 후보 막말 논란…차명진·김대호 '제명' (4.8.수)
- ▶ 총선 앞두고 터져나온 '막말'…통합당, 진화 나섰지만 (4.8.수)
- ▶ '차명진 막말'에 허리 숙인 통합당…"한 번만 기회 달라" (4.9.목)
- ▶ 당 제명 결정에도…김대호·차명진 "끝까지 선거" 폭주 (4.9.목)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44450&pDate=20200409

- ▶ 통합당, '막말' 차명진 제명 대신 탈당 권유…사실상 '구제' (4.10.금)
- ▶ [2020 우리의 선택] 면죄부 결정에 김종인도 "한심"…정의당 "통합당 해산 권유" (4.10.금)
- ▶ 자책골 된 'n번방 폭로설'…김종인 "제발 입 좀 닫아라" (4.11.토)

○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4조(정치적 중립) ① 방송은 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후보자"라 한다)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하 "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 방송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의 주의·주장 또는 이익을 지지·대변하거나 옹호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공정성) ① 방송은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②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형평성) ①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하여 실질적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평한 관심과 처우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8조(객관성) ① 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루어야 한다. ② 방송은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한 여러 종류의 상이한 관점이나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 제11조(제작기술상의 균형) 선거에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은 음향과 음성, 촬영, 화면구성, 조명 등의 기술적 측면에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하여 가능한 한 동등한 조건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실보도) ①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하는 등으로 왜곡하여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2조(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① 방송은 정치와 공직선거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 방송은 정치문제를 다룰 때에는 특정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이나 입장에 편향되어서는 아니된다.

V. JTBC의 민주당 편들기 보도

- 일주일간(4.5~ 4.11) 총선 관련 보도는 총 49개로 분류할 수 있음.
- 그 중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대해 양비론이나 양시론, 기타 정당 관련 등 기계적 중립에 해당하는 보도를 제외한 모든 기사는 보수야당인 통합당을 비판하거나 불리한 기사였음.

1. 4월5일(일)

- [2020 우리의 선택] 총선 열흘 앞...여 '코로나 극복' 강조, 야 '경제위기' 부각
- [2020 우리의 선택] '130석' 노리는 거대 여야...승부처 '접전지' 흐름은?
- 굴착기 물고 말 타고...이색 선거운동 '머리싸움' 치열

2. 4월6일(월)

- 총선 앞둔 여야..."전 국민에 재난지원금" 주도권 경쟁
- 여야, '재난지원금 100% 지급' 한목소리...현실성은?
- [2020 우리의 선택] 이낙연·황교안 첫 토론...코로나·조국 이슈 등 '격돌'
- 3040은 무지하고 무논리?...미래통합당 세대 비하 논란
- 선거법 바뀌었지만...군소정당 의석 수 되레 줄어드나
- [2020 우리의 선택] 지나간 '단일화 골든타임'...투표용지 인쇄 시작
- [2020 우리의 선택] [여론조사] 부산 김영춘 39.1% vs 서병수 36.8% '초접전'
- [비하인드+] 심은하 깜짝 등장...유세장에 뜬 '연예인 가족'

3. 4월7일(화)

- '재난지원금' 주도권 경쟁...민주당, 통합당에 회동 제안
- 유승민 "전국민 50만원? 악성 포퓰리즘"...황교안과 집안싸움
- "있을 수 없는 발언"...통합당, 3040 비하 논란 김대호 '제명'
- [2020 우리의 선택] "대학 2학년" vs "기름 바른 공"...거칠어진 설전
- [2020 우리의 선택] 의원 꺾주기 경쟁...홍보물에 '기호'도 못 넣은 정의당
- [2020 우리의 선택] '무당총' 표심은 어디로...여야, 아전인수 해석
- [비하인드+] "협약 요청 X"...홍준표 '홍새로이' 패러디, 결국 삭제

4. 4월8일(수)

- 차명진 통합당 후보, TV토론서 또 '세월호 막말' 파문
- 통합당, 연이은 후보 막말 논란…차명진·김대호 '제명'
- 총선 앞두고 터져나온 '막말'…통합당, 진화 나섰지만
- [2020 우리의 선택] 9일부터 '깜깜이 선거'…여도 야도 "확실한 과반" 장담
- 자가격리자, 별도 기표소서 '마감 직전 일괄투표' 유력
- [2020 우리의 선택] [여론조사] '광진을' 고민정 49.6% vs 오세훈 39.4%
- 나경원 "허위사실 공표 고발"…이수진 "구민들, 진실 알아"
- [비하인드+] 이국종, 여야 후보 모두에 '이유 있는' 지지

5. 4월9일(목)

- '차명진 막말'에 허리 숙인 통합당…"한 번만 기회 달라"
- 당 제명 결정에도…김대호·차명진 "끝까지 선거" 폭주
- 흥기 들고 돌진, 욕 퍼붓고 뺨 때리기도…유세현장 '난동'
- [2020 우리의 선택] 대형 국책사업, 모든 대학생에 100만원…앞다퉀 '선심 공약'
- 민생·정의·국민의당, 여야 '위성정당' 조준…합동 포사격
- [2020 우리의 선택] '깜깜이 선거' 돌입…마지막 여론조사로 본 격전지 판세는
- [2020 우리의 선택] 안전하게 '소중한 한 표'…10~11일 사전투표 어떻게?
- 코로나 국면 속 총선 '투표율 걱정'…사전투표가 변수로
- [비하인드+] 통합당 후보 또…주동식 "제사에 매달리는 광주"

6. 4월10일(금)

- [2020 우리의 선택] 21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투표율 12.14% '역대 최고'
- 문 대통령 부부도 투표…"사전투표로 인원 분산되길"
- '코로나 격리' 유권자도 15일 투표…"동선·시간대 분리"
- 통합당, '막말' 차명진 제명 대신 탈당 권유…사실상 '구제'
- [2020 우리의 선택] 면죄부 결정에 김종인도 "한심"…정의당 "통합당 해산 권유"
- 3자 구도 지역구 '단일화 변수'…동대문을 민병두 사퇴
- "주말에 한 방 터진다"?…여야, 'n번방 폭로설' 신경전
- [민심로그] 박수현 vs 정진석 '리턴매치', 공주·부여·청양 현장은?

7. 4월11일(토)

- 뜨거웠던 사전투표…1천만명 찍었다 '역대 최다 투표'
- [2020 우리의 선택] 역대 투표율에…여야, 서로 다른 해석
- [2020 우리의 선택] 민주, 강남서 '보유세 완화' 언급…통합당 "한숨에 촛불 꺼져"

- 자책골 된 'n번방 폭로설'...김종인 "제발 입 좀 닫아라"
- 체온 재고 마스크·장갑 끼고...불편했지만 '불평' 없어
- 21대 총선 사전 투표율...역대 최고인 26.69%로 집계

VI. 연합통신의 편파적인 총선 보도

1. 연합의 위장된 균형 보도

▶ [사전투표] 역대최고 사전투표율에 여 "국난극복 열망" vs 통합 "심판 민심"(4.11 20:26)

○ 주지하다시피 4·15 총선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원내 제1당 다툼이 최대의 관심사다. 민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선거법 개정 협상에서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군소 정당들을 끌어들이 이번 선거에 도입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양당제의 폐해를 해소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온갖 변칙과 야합과 위선만 드러냈을 뿐이고 양당 대결 구도가 오히려 더 심화했다. 따라서 선거 보도는 내용과 분량 면에서 양당이 균등하게 다뤄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연합뉴스는 국가기간통신사로서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총선 보도에서 그런 시늉만 낼 뿐 보도의 편파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연합은 사전 투표 결과를 정리한 기사에서 사상 최고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을 놓고 여야가 서로 각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표심을 해석했다는 내용을 리드로 삼았다. 그리고는 민주당 관련 내용을 끝까지 다루고 나서야 통합당 관련 내용을 소개한 뒤 군소 정당들 관련 내용을 뒤에 붙였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형식상으로는 균형, 공정 보도이지만 기사 작성 기술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번 총선 같은 양당 대결 구도에서는 리드와 세컨드 리드, 또는 그 이후에도 양당 관련 내용을 함께 다룬 뒤 각론에서 여당, 야당의 순서로 기사를 작성하는 게 기본이다.

○ 그러나 연합 기사는 리드에 이어 민주당 관련 내용이 4문단이나 계속되고 나서 6문단째에 가서야 통합당 관련 내용이 나온다. 야당 관련 내용을 읽으려는 독자에게는 일종의 고역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읽는 독자라면 여당 관련 내용에서 오는 선입감으로 야당 관련 내용을 그릇되게 이해할 공산이 크다. 초보 기자라도 이런 식으로 기사를 작성하면 데스크에게 단단히 혼난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연합이 이 기사를 천연덕스럽게 내보낸 것은 편파 보도 비난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태도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2. 연합은 여당의 선거운동원인가?

▶ 총선 D-3...여 "과반 만들어 달라" vs 통합 "폭주 견제할 힘 달라"(종합2보) (4.12 21:59)

○ 민주당과 통합당의 막판 유세 관련 내용을 다룬 이 기사는 위의 기사와 달리 리드와 뒤이은 문단들에서 양당 관련 내용을 함께 다루는 형식적인 균형은 갖췄다. 하지만 이 기사 역시 편파적이란 비난을 면키 어렵다. 관해서는 양당 모두 막판 총력 유세 내용을 소개하기는 했으나 유독 통합당 관련 내용에서는 굳이 “최근 잇단 막말 논란으로 비판을 받은 통합당”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통합당의 막말 행태를 기정사실화했다. 독자가 읽으면 자연히 통합당에 비판적인 인상을 갖기 마련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막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황교안 당대표,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을 각각 ‘돈키호테’, ‘애마’, ‘시종’으로 비하했다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 여권이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는 통합당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의 이른바 ‘막말’은 따져 봐야 할 대목이 많은데도 연합은 무조건 막말로 몰아붙이며 여당 선거운동을 자처하고 있다. 차 후보는 한 방송 토론에서 “세월호 사건을 신성시하지 않는 쪽은 짐승”이라는 민주당 후보의 발언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천막 사건’을 언급했다고 한다. 만약 차 후보가 인용했다는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천인공노할 일이다. 통합당이 열흘 뒤에나 제명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번 선거와는 아무런 영향도 못 미치는 ‘탈당 권유’라는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 것도 이런 정황을 참작해서다.

○ 오히려 “세월호 사건을 신성시하지 않는 쪽은 짐승”이라는 주장이야말로 자유 대한민국에서 용납될 수 없는 망발이다. 자신과 뜻이 다르다고 국회의원 후보를 ‘짐승’에 비유한 것은 상식 이하의 처사다. 수학여행 가던 학생 수백 명이 숨진 재난 사고인 세월호 사건이 정치적으로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고 마치 성역처럼 말도 못 꺼내게 한단 말인가. 차 후보가 공개한 내용의 사실 여부는 조사해 보면 단박에 드러날 일이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해당 언론과 차 후보, 나아가 통합당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당사자들부터 진실을 밝혀야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 연합 기사에서 여당 관련 내용은 ‘강조했다’, ‘말했다’ 등 우호적이거나 가치중립적인 서술어를 사용한 반면 야당 관련 내용에는 ‘주장했다’, ‘읍소했다’ 등 부정적 표현을 구사한 것도 교묘한 편편 보도다. 분량 면에서도 통합당 관련 내용은 1040여 자이고 민주당 관련 내용은 이보다 140여 자 더 많은 불균형을 보였다.

○ <[연합시론] '세월호 막말' 차명진 후보에 완주 기회 준 통합당>(4.10 16:29) 역시 순전히 민주당 선거운동원의 입장에서 통합당을 공격한 내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론은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세월호 텐트 문란 행위' 등을 거론한 차 후보를 제명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존재 여부와 구체적인 실체부터 가려내야 하는 언론의 정도는 철저히 외면했다. 끝.

[참고 말씀]

※참고 : 이 보고서는 미디어연대의 분석자료입니다. 자유롭게 활용하시되, 인용시 '미디어연대 자료'임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후원 : 저희 미디어연대와 함께 해주십시오. 후원해주신 분들에게는 미디어연대 <팩트체크+(플러스) 보고서>를 보내드립니다. 후원은 미디어연대 홈페이지(www.medianetwork.kr)에서 '후원하기'를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